“야구는 곧 제 삶”…45시즌째 타이거즈 사랑

신교진 ‘KIA Tigers Fan Team’ 단장

2천693경기 직관한 열혈 원년 팬
150여명 회원들과 전국 경기 응원
기품장어와 포스트시즌 간식 나눔

“타이거즈 야구는 제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19살부터 지금까지 한 팀만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신교진(62·사진) ‘KIA Tigers Fan Team’ 단장은 1982년 프로야구 원년부터 이어온 타이거즈 사랑을 이같이 표현했다.

전주 출신인 신 단장은 야구를 좋아하던 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고교 시절부터 타이거즈에 빠져들었다.

신 단장은 “이번 포스트시즌까지 전국 야구장에서 직접 관람한 경기가 2천693경기에 달한다”며 “KIA 경기가 열리는 곳이라면 먼 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가 가장 잊지 못하는 순간은 2009년 한국시리즈다. 나지완의 끝내기 홈런으로 KIA가 우승을 확정한 장면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는 “타이거즈 경기는 한 편의 드라마이자 콘서트”라며 “응원단의 리드에 온몸을 맡기고 춤추고 노래하며 열광하는 순간이 즐겁다”고 웃어 보였다.



2015년에는 뜻이 맞는 팬들과 ‘KIA Tigers Fan Team’을 결성했다. 현재 150여명의 회원이 전국 야구장을 함께 누비며 응원하고, 봉사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올해 포스트시즌에는 대학 선후배 사이인 유현준 기품장어 대표의 협찬으로 특별한 나눔 행사도 마련했다.

KIA의 선전을 기원하며 전남광주에서 열린 홈경기 4차례에 걸쳐 팬들에게 어묵과 붕어빵을 무료로 제공한 것이다.

신 단장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팬들을 위해 홈경기마다 1천인분 이상의 간식을 준비해 재료가 소진될 때까지 나눠줬다”고 말했다.

팬팀의 나눔 활동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결성 첫해인 2015년 광주지역 위탁가정 어린이 113명을 초청해 자선행사를 열었으며, 이후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KIA 홈경기가 끝난 뒤에는 회원들과 함께 경기장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화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 신 단장은 이스트서울여자야구단 단장으로 선수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학생야구 후원과 김진우 전 KIA 투수의 유소년 야구단에서도 단장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그는 “명문 구단에는 명문 팬이 있어야 한다”며 “KIA가 더욱 사랑받는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팬들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의 소망은 KIA의 13번째 우승”이라며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야구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이연상 기자

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
외국인 근로자 겨울맞이 물품 지원

고흥지역 어업 종사자에 침구류 전달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가 겨울철을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환경 개선과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는 1일 “최근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겨울맞이 침구류 물품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17개국 출신 근로자들이 해당 제도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전남지사는 겨울철을 대비해 고흥지역 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20여명에게 침구류 세트 등 물품을 전달했으며, 사업장 내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지원했다.

특히 겨울철 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인권 교육도 실시했다. 교육을 통해 사업주의 노동인권 보호 의식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도모했다.



박태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지사장은 “타국에서 고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작아진 옷·장난감에 사랑 담아”…특별한 ‘알뜰장터’

남구 구립다온어린이집 아나바다
수익 전액 기부…“나눔 가치 확산”

“우리 아이가 쓰던 장난감이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중한 선물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봉선동 e편한세상 봉선셀레스티지 아파트 단지 내 구립다온어린이집 앞. 평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공간이 이날만큼은 이웃 간 온정을 나누는 작은 장터로 변신했다.

‘다온가족과 함께하는 아나바다 알뜰장터&먹거리마당’이라고 적힌 알록달록한 현수막 아래에는 아이들이 입던 옷과 신발, 장난감 등이 가지런히 놓였다.

옷걸이마다 다양한 아동복이 걸렸고, 테이블 위에는 인형과 생활용품 등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렸다. 학부모들은 물건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필요한 물품을 골랐고, 유모차를 끌고 나온 가족들도 장터 구경에 한창이었다.

장터 한편에 마련된 빨간 천막에서는 먹거리마당이 펼쳐졌다. 주민들은 떡볶이, 오징어전 등 다양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다.

놀이터 주변에 줄지어 걸린 아이들의 사진도 눈길을 끌었다. 해맑게 웃거나 꽃을 들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 부모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사진을 감상했다.

이날 장터에 27개월 아이와 참여해 장난감과 옷 등을 내놓은 박서연(30대·여) 씨는 “물건을 고르면서 아이에게 동생들이나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해줬다”며 “아직 어린 나이라 나눔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나누는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다”고 웃어 보였다.

지난 4월 문을 연 구립다온어린이집이 처음 진행한 이번 행사는 ‘우리 아이들도 함께 도울 수 있어요’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나눔과 배려를 경험하고, 가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봉선동 e편한세상 봉선셀레스티지 아파트 입주민들이 직접 행사장을 찾아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 등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돕는 ‘해맑음 호남센터’에서 센터장과 위로상담가 등 6명이 함께 행사 전반에 걸쳐 봉사하며 지역사회 나눔과 소통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알뜰장터와 먹거리마당에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인 111만원은 남구와 협의를 거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된다.

박신연 구립다온어린이집 원장은 “지역사회에 첫걸음을 내디딘 우리 어린이집이 아이들과 학부모,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이 아이들을 돌보는 공간을 넘어 이웃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공동체의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형우 기자



초록우산, 제42회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개최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는 1일 “지난달 2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록우산 광주후원회, 광주청년후원회와 함께 후원자와 결연아동이 한 자리에 모여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제42회 후원자-아동 만남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꿈을 잇는 우리 42’를 주제로 후원자와 결연아동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키링 만들기 체험과 인재양성 아동공연, 유공자 표창, 후원금 전달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이영창 바른안과 원장과 유영태 초록우산 광주후원회 명예회장, 변정랑 초록우산 팀장은 지역 아동 후원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표창을 받았다.

변정근 초록우산 광주지역본부장은 “후원자와 결연아동이 함께 모여 교감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지역사회에 나눔과 아이들의 꿈을 잇는 가치가 더 넓게 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상 기자

광산구, 범죄피해자 회복 지원 ‘맞손’

광산경찰·투게더광산, 업무협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는 1일 “최근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광산경찰서와 함께 범죄 피해 가정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세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움이 필요한 범죄 피해자를 신속히 발굴하고 맞춤형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광산구 고유의 복지 브랜드인 ‘행복망’ 지원 체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정기적인 사례 회의와 정보 공유를 통해 희망·나눔 자원을 폭넓게 확장할 방침이다.

세부 역할 분담을 통해 광산경찰서는 피해 사례 발굴과 안건 상정, 사후 모니터링을 전담한다. 광산구는 대상자 지원 현황 관리와 보호·지원 자원 발굴에 나선다.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은 피해자의 조속한 자립을 위한 모금·홍보, 투명한 후원금 집행을 수행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각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굳건히 다지고 범죄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옥근 기자



광주 양산마을 ‘제6회 가을 문화축제’ 성료

LH광주양산 주거행복지원센터는 1일 “시민사회종합복지관과 함께 최근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6회 양산마을 가을 문화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냄비받침과 핸드크림 만들기, 아로마 손마사지, 보드게임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또 가을 국화 나눔 행사와 다양한 먹거리도 마련돼 주민들에게 일상의 활력을 더하고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올해는 시민사회종합복지관과의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하게 구성하면서 참여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황승하 LH광주양산 주거행복지원센터장은 “앞으로도 시민사회종합복지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민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찬웅 기자



북부경찰, 모범운전자회 창립 38주년 행사

광주 북부경찰서는 1일 “최근 경찰서 4층 공감마루에서 ‘제38주년 광주북부모범운전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찰과 모범운전자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한 유공회원 감사장 수여, 경찰서장 및 모범운전자회장 인사말, 결의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백승 광주북부경찰서장은 “바쁜 생업에도 자발적인 봉사정신으로 교통질서 확립에 앞장서 준 회원들의 노고는 북구의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힘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교통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찬웅 기자



광주권역 의용소방대, 라오스서 나눔 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본부는 1일 “광주권역 의용소방대가 지난달 25-29일 라오스를 방문해 현지 소방서를 견학하고 방비엥 팍포(Pakpor) 소수민족 초등학교에서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광주 의용소방대의 해외 방문은 라오스의 소방 대응체계와 재난현장 활동 등 현지 소방 관련 정보를 습득하고 해외 소방안전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의용소방대는 라오스 비엔티안 소방서를 찾아 지역위기 발생 때 주민 대피, 응급 복구 등 분야별 소방 정보를 살피고 양국의 소방안전 환경과 활동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방비엥 팍포 소수민족 초등학교를 방문해 준비해 간 학용품 등 기부물품을 전달하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구동욱 전남광주시소방본부 광주권역부본부장은 “이번 활동은 현지 소방서와 교류를 통해 다양한 소방 정보를 습득하고 소외된 지역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됐다”며 “소방안전 역량을 높이는 한편 지역사회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는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